



石佛은 座臺위에 結跏趺座하고 光背를 具備한 毘盧舍那佛인데 上臺石과 光背의 位置는 本來대로가 아니다。(寫眞参照) 螺髮의 頭頂에는 낮은 肉髻가 있고 兩眉間에 白毫가 있으며 相好는 圓滿한데 鼻, 口唇等에 若干의 磨損이 있다. 三道는 없고 목은 平坦이며 右便耳朶가 破損되었었다. 通肩한 法衣는 兩腕에 걸쳐 무릎을 덮었는데 그衣文이 굵게 彫刻되었었다. 座臺는 方形으로서 下臺는 埋沒되어 伏蓮만이 보이는데 側面에 있는 三區의 眼象內에는 귀꽃같은 山形文을 陽刻하였으며 伏蓮은 雄麗한 重瓣으로 各邊과 隅角에 一瓣씩을 돌려 都合八瓣을 彫刻하였다. 下臺上面에는 二段의 角形의 影飾이 있어 中臺를 받고 있는데 側面一區씩의 큰 眼象內에도 山形文의 影飾이 있다. 上臺石은 下面에 二段의 물딩과 一段의 角形받침이 있고 側面에는 仰蓮이 있는데 그것은 下臺와 같은 形式이며 配置도 相對的이다. 光背는 舟形인데 上部가 破損되고 下部는 埋沒되었으며 周緣에는 火焰文이 流麗하다. 頭光은 圓形으로서 太條內에 八葉의 蓮瓣을 돌렸고 그 間地에는 寶相華文이 彫刻되었으며 中央子房에도 彫飾이 있다. 化佛은 頭光의 左右上部에 配置되었는데 頂上에도 있었으리라 짐작된다. 下部 左右에는 二條의 圓形頭光이 뚜렷한 立像을 一軀씩 陽刻하였는데 이들은 中央에 坐像을 모신 左右脇侍로서 三尊의 形式을 갖은바라 하겠다. 別石의 石佛 및 光背로서 이러한 形式의 類例는 아직 調査되지 않은 稀貴한 一例라 할 것이다. 坐像의 相好 및 衣文이나 光背, 座臺等의 手法으로 보아 年代는 高麗初期의 優作으로 推定된다. 實測

值는(cm) 如左하다.
像高九五 肩幅四五 光背高一三〇 中臺高二七 像膝六二 胸幅二六 光背廣幅九五 中臺幅四一 上臺厚二一 上臺幅七二

① 石佛은 公根面 註

下土洞里鶴谷洞에서 옮겨온 것이라는 데 이 部落民들도 證言하거나 朝鮮寶物古蹟調査資料(五二九頁)에도 「鶴谷部落ノ西北方約五町山麓ニ在リ、座像ニシテ 佛座ヲ存ス 高サ約三尺凡テ完全ナリ」라 하여 原位置와 移搬事實은 뚜렷한 것이라 하겠다. 石塔은 原位置를 確認치 못하였다고 함.
② 最近消息에 의하면 塔像을 收拾하여 保護策을 講究하였는 바 現地 再調査 機會가 없어 確認치는 못하였다.

青龍寺 普覺國師塔碑와 石燈 鄭 明 鎬

一九五九年 八月中旬頃 中原郡과 堤川地方을 調査하던 中 樣式手法이 特異한 浮屠一基를 注目한 바 있어 紹介하고자 한다. 忠州에서 原州로 約三十里되는 中原郡 蘇臺面 五良洞에 있는 青龍山 아래 青龍寺址에는 數個의 石造遺物이 散在하고 있다. 이중 高麗末 高僧인 普覺國師의 定慧圓融塔과 碑가 있다. 이 寺址에 對하여 「朝鮮寶物調査資料」 忠州條 『青龍寺址ト稱ス高サ九尺ノ塔一 高サ各八尺ノ碑二、床石一 高サ六尺ノ石塔一 現存ス』라 있고 「朝鮮金石總覽」卷下에 普覺國師定慧圓融塔碑文이 收錄되어 있을 뿐이다. (東國輿地勝覽)에는 漏落되어 있어 알지기 廢寺가 된듯하다) 上記의 塔은 八角浮屠를 가리키는 것으로 八角塔身部各面에 神將인듯한 彫像과 各隅柱에는 엔타시스위에 蟠龍이 기둥을 기어오르고 있다. 柱上에는 雙峰寺 澈鑑國師塔과 같이 柱頭가 보이지 않는 昌枋머리가 表現되어 있다. 아울러 屋蓋의 棼하에는 이 昌枋머리와 的 接處에 보머리形을 이루고 추녀와 사례도 陽刻하였다. 下臺와 中臺에서와 같이 棼하에는 十六瓣의 單蓮瓣內에 寶相花文인듯한 文樣을 陽刻하였다. 이곳에서 注目된 것은 上述한 蟠龍이다. 이 蟠龍例로서는 完州 三奇里 石燈과 神勒寺 普濟尊者 石鍾前 石燈과 德壽宮內의 漏刻等이 있다. 이는 一

三九四年 太祖三年에 세워진 것으로 現在 碑를 向하여 倒壞되어 있다. 復元은 可能하며 李朝浮屠중 最優秀作品으로 推定된다. 浮屠앞에는 石燈이 있었던 것으로 이는 現在山中腹一庵子에 移建되어 있는데 下臺石은 稀貴한 例로써 慶州 南山 天龍寺址龜趺와 같으며 그 위는 方形의 竿石 中臺 火舍石、屋蓋로 되어있다. 이는 浮屠에 比하여 매우 秀麗한 手法을 보여 同代의 것으로 보기에 疑를 勿하다. 碑는 億政寺 大智國師 碑와 同類의 것이며 이 附近에는 石鍾型浮屠가 散在하고 있다. 앞으로 이곳에 再調査가 있기를 바란다.

浮屠實測值

屋蓋의	一邊의 幅	五六cm	高	六〇・五cm
塔身	一邊의 幅	三五・五cm	高	五八・五cm
中臺石	一邊의 幅	四五・七cm	高	二八cm
地臺石	一邊의 幅	五七m	高	三三三cm
中臺와	下臺石은	같은		

安城郡 七長寺의 調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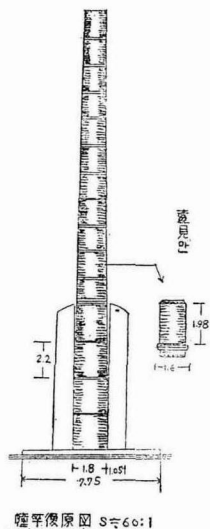
申 榮 勳

一九六一年 夏季 安城郡一帶를 踏查하던중 七長寺를 尋訪、遺物을 調査한 바 있다. 七長寺는 當時 竹山縣(現安城郡二竹面)의 最高의 寺刹로 모든 文物이 具備되었고 高麗以來로 國家에서 重要視하여 高僧大德이 多數輩出되고 特히 文宗代의 人物인 慧炤國師가 入寂하는 등 沿革도 多彩로운 寺院이다. (事蹟碑文參照)

지금도 諸法殿과 石造遺物이 多數遺存하고 있어 盛期의 面貌를 엿보게 한다. 그중 重要한 것만을 略記하기로 하겠다.

洞口聚落路上에 「朝鮮國竹山七賢山七長寺重修香火事蹟碑銘 并序」云云 한 石碑가 岩盤上에 豎立되어 있다. (崇禎四四年辛亥六月日立) 이 碑에서

오던 길을 돌아다 보면 田中에 目測二十 五餘尺高의 鐵製幢 竿을 發見하게 된다. 圓筒形의 鐵物을 十 五節 맞추어 올려 세운 幢竿을 花崗石製



의 支柱가 버티고 있다. (圖面參照) 언제쯤인지 무너진 것을 近來에 다시 세웠는데 積心으로 薪炭材를 넣어 겨우 세워놓기는 하였는데 지금은 上部가 東南側으로 상당히 기울어져 있다. (古老談에 依하면 이때 數節이 行方不明이었다고 함) 그 후 積心이 兩路에 腐蝕될까 염려되어 무쇠술을 거꾸로 끼워 넣었는데 그 形狀은 可觀이었다. 製作年代는 李朝中期以前으로 推定되었다. 이 幢竿位置에서 細路로 南行하면 田中에 幢竿支柱가 있는데 遠見만 하였을 뿐이어서 詳記할 수 없다. 다시 제자리로 와서 北行하여 石階에 오르면 正面三間 側面一間의 天王門을 通過하게 되었고 이어 仁王門(?)에 이르며 여기를 通하여 中門으로 가게 되었다. 中門에 들어서면 庭中에 놓인 浮屠二基가 눈에 띄고 그리로 향하여 가면 石段上의 大雄殿(正面三間側面三間)과 圓通殿(正面三間側面二間)이 보인다. 大雄殿前石階에 오르기 전에 左右에 李朝期의 作品으로 보이는 幢竿支

